

광주 광산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장 가보니

‘핑’ 폭발한 공장...220명 총출동 ‘실전 같은 60분’

광산 하남산단 ㈜호원 공장 ‘화재+붕괴’ 복합 재난 가정
초기진화부터 인명구조까지 16개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



최근 광주 광산구 장덕동 ㈜호원 하남공장에서 실시된 '2026 광주구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광산소방 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대형 화재와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광산소방서, 광산구청, 전남대학교병원 등 16개 기관·단체와 장비가 투입됐다.

“불이야! 공장 안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호원 공장에 굉음과 함께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의 번지는 가운데 추가 폭발로 태양광발전설비와 공장 일부 구조물이 붕괴됐다. 작업복 차림의 근로자들은 황급히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마신 채 쓰러져 구조를 기다렸다.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이날 재난 현장은 광산소방서가 주관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이었다. 대형 화재와 공장 붕괴가 동시에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나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고 직후 자위소방대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자체 방송과 사이렌이 울리자 대원들은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섰다. 직원들은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했다.
공장 밖으로 빠져나온 근로자들은 연기를 들이마신 채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일부는 자력 대피 과정에서 쓰러졌다. 공장 내부에는 고립된 인원도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곧이어 “긴급출동. 광산소방 출동 바란다”는 무전과 함께 소방차들이 현장으로 진입했다.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한국전력, 전남대학교병원, 광산구청 등 16개 기관·단체 220여명과 장비 40여대가 투입됐다.
고가사다리차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화염을 향해 쏟아졌고, 구조대원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 공장 내부로 진입해 고립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임시의료소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를 동시에 진행했고, 현장 곳곳에서는 “호흡 확인!”, “들것 준비!” 같은 긴박한 외침이 이어졌다.
특히 구조대원들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전등과 무전 장비에 의존해 내부를 수색하며 한치의 오차 없는 대응을 이어갔다.
훈련에 참여한 오현희 의용소방대원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며 “평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나훈원 광산소방서장은 “공장은 전기·열 발생 요인이 많고 밀폐된 구조여서 화재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지역 긴급구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합동 재난대비훈련으

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주 ㈜호원 안전·제조 총괄사장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이 없으면 실제 화재 발생 시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o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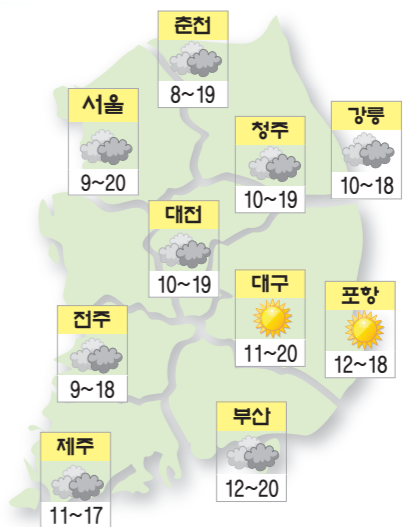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specific regions like Gwangju, Mokpo, and Yeosu, including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specific regions like Gwangju, Mokpo, and Yeosu, including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아침 먹고 가” 친부 폭행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부를 때린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부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

카페 돌진 10명 사상사고 낸 60대 금고형

광주 도심에서 카페로 차량을 돌진, 10명의 사상자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부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주행하던 차량을 한 카페로 돌진해 B씨(41)를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3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73km까지 급가속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카페 돌

진 사고를 냈다.
A씨가 주행하던 차량은 보도를 넘어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핑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 오류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했을 때 A씨가 가속페달을 일관적으로 세계 밟았으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의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남구 “AI 무인회수기 이용하니 재활용률 ↑”

총 19대 운영...연간 캔·페트병 1만여개 수거

광주 남구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회수기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AI 무인회수기는 주민 참여형 자원 회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캔과 페트병을 인식·선별하는 첨단 장비다.
현재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장소는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10곳(19대)으로, 주월동 푸른길 공원 비스포 뒤와 백운동 스트리트푸드존, 월산4동·월산5동·방림2동·봉선1동 행정복지센터, 사직동·주월2동·봉선1동 공영주차장, 봉선2지구 어린이공원 등이다.

남구는 AI 무인회수기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 적립형 보상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용자가 캔 또는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누적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년) AI 무인회수기의 재활용률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 수거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캔과 페트병을 각각 148만1155개와 942만1206개, 지난해는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개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AI 무인회수기 수거 모습

연도별 포인트 보상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주민 1만3569명에게 7431만9420원을 지급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주민 2만490명과 2만1535명에게 각각 9696만7500원과 9968만1510원을 보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물연대-BGF로지스 노사 합의...물류센터 봉쇄 해제

운송료 인상·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등 타결 “물류환경 개선”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열흘 가까이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당초 조인식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밤늦게까지 팽

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하루 연기가 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막판 세부 문구 조정에 적극 합의하면서 갈등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만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그간 부정된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사측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꼽는다.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뜻을 모았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도 구체화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고,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대차비용에 상한 기준을 마련해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에 대해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조인식 지연의 핵심이었던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기로 명시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권력에 의한 책임 규명은 별개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력이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되어 향후 안정적 물류 공급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노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최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촉발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